

개관 7년 ACC...통합조직 '새 출발'

콘텐츠 구축 1389건 가운데 71% 970건이 창작작 대표 콘텐츠 부재...시민들 접근성 제고 등 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오는 25일로 개관 7주년을 맞는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ACC는 그동안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문화발전소라는 지평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통합된 신설 조직으로 출범한 첫 해다. ACC는 통합 전당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기관 운영 준비를 매듭짓는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해왔다. 초대 전당장 취임과 맞물려 사업과 조직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그러나 대표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시민들의 전당 접근성 제고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역사회의 내실 있는 협조 체계 구축 등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먼저 개관 7주년을 앞두고 ACC 방문객이 128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성과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1200만 여명이 ACC를 다녀간 것은 나름의 성과다.

개관 이래 구축한 콘텐츠 1389건 가운데 자체 창작작인 건수가 970건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총 콘텐츠의 71%에 달한다. 그동안 실험적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아시아문화 조사 연구와 교류,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올해 ACC는 교류 활성화와 프로젝트 실험 기능 강화, 고객 중심 서비스 고도화,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사랑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문화창조원과 문화정보원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방문을 견인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개방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여간 폐쇄됐던 하늘마당도 개방을 했으며 입체 음향과 영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대형 미디어큐브를 설치해 이용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복합전시관 6곳에서는 아시아 동시대 주제 관련 체험형 융복합 미술 전시를 열어 아시아 현대 미술의 관객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지난 11월까지 선보인 융복합 전시 '지구의 시간'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누적 입장객 수가 8만6213명을 기록했다. 또한 남도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보물선 3.0-비밀을 여는 시간' 시범 전시도 3주라는 짧은 기간 1만6986명이 관람했다.

올해 주요 융복합 콘텐츠 전시 및 행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ACC-R 레지던시 결과 발표 전시 '바이오피라, 그 너머'를 비롯해 ACC-R 레지던시 라운드테이블, 시범사업인 ACT 열린 창작소, ACC시네마테크 정기상영회는 융복합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인 프로그램들이다.

또한 2022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콘텐츠 '지구의 시간'은 기후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인류세'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인터랙티브 아트, 사운드 스퀘어 등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는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콘텐츠 핵심 주제인 '자연 그대로'를 반영해 준비한 '물' 주제 전시 '아쿠아 천국'은 지구환경을 주제로 해 눈길을 끌었다. 체험형 야외 전시 '반디산책'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에게 어필을 했다는 평가다. 작품 일부는 '2022 서울아트스테이션'에 초청 받아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공연 분야에선 ACC 작품 유통이 두드러졌다. ACC 아시아 스토리 공모전으로 개발된 '시간을 찢는 사람'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작품으로 세종시 등 3개 도시를 순회 공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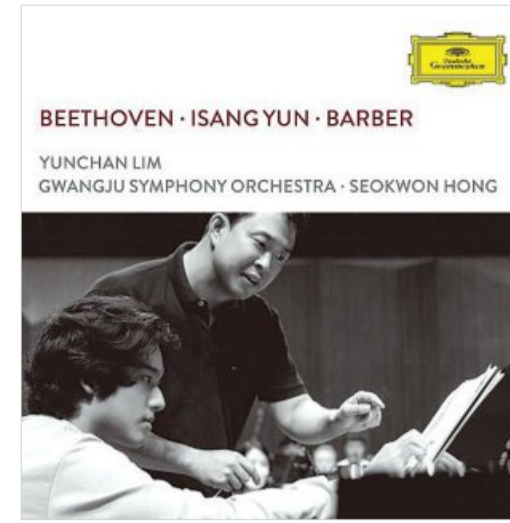
아시아 문화교류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지난 10월 열린 '아시아문화주간'에는 아시아 전통 문화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축제와 공연, 전시, 교육 등 행사를 통해 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ACC는 향한 콘텐츠 창작자 원천 소스가 되는 아시아문화 자원을 수집하고 연구 전문성과 활용성을 높여 아시아 문화자원 가치를 확산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러나 술허가 제기된 문화전당의 접근성과 동선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ACC가 건물이 지하에 있는데다 복잡한 구조여서 외지인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방문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개관 때부터 제기됐다.

또한 문화전당의 정체성이 창작자에 있지만 일부 콘텐츠의 경우 지나치게 난해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도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창작자 문화발전소라는 역할에 중점을 둔 나머지 대중 친화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개발하는 데는 다소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 with 임윤찬' with 임윤찬

'베토벤, 윤이상, 바버' 실황앨범 28일 발매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홍석원·이하 광주시향)과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이 담긴 '베토벤, 윤이상, 바버' 실황앨범이 이달 28일 발매된다.

광주시향과 임윤찬은 지난 10월 8일 통영국제음악재단 기획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 with 임윤찬'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와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등을 함께 연주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유명 음반사 도이치그라모폰(DG)을 통해 발매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는 통영국제음악당 공연 당시 연주했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외에도 앙코르로 연주한 몸포우의 '정원의 소녀들'과 스크리아빈의 '2개의 시곡' 중 1번, 음악 수첩 등 3곡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임윤찬과 지휘자 홍석원의 인터뷰와 한정판 엽서 3종과 포스터 1종도 증명된다.

사전 예약을 마친 이들은 구매평에 '올해 대미를 장식할 필적 음반, 공연을 직관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 기대되는 음반', '협연곡에 앵글 곡까지 담겨 있어 팬들에게 이만한 선물이 없다' 등을 작성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베토벤, 윤이상, 바버' 앨범은 예스24, 알라딘 등 각종 예매사이트에서 주간베스트 CD/LP부문 종합 1위, 클래식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임윤찬은 2004년생으로 만 11세의 나이에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의 금호영재 콘서트로 데뷔, 2019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 등 3관왕을 기록했다. 지난 6월에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ACC가 올해 선보인 융복합 전시 '지구의 시간'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은 대표 콘텐츠다. <ACC 제공>

늦가을 잔잔한 해금 선율

해금 합주단 '이현' 정기연주회...26일 전일빌딩245

늦가을 잔잔하고 구슬픈 해금 선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해금합주단 '이현'의 제4회 정기연주회가 26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8층에서 열린다.

단원 31명, 총 47곡까지 모집된 해금 합주단 '이현'은 이번 무대에 6곡을 올린다.

무대의 막은 이정춘의 소설 '축제'를 모티브로 김수현이 작곡한 '꽃의 동화'와 혼례식에서 축가로 불리워지는 노래 '가시버시 사랑'으로 연다. 이어 영화 '왕의 남자' 삽입곡으로 유명한 '인연'을 이현 3기가 연주한다.

다음으로 이현 1기가 각 지방의 아리랑을 모은 '아리랑 모음곡'을 선보인다. 이 곡은 구아리랑, 신아리랑, 밀양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5곡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역 음악 특성이 표

현데 있어 듣는 즐거움을 더한다.

이어 이광혁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의 인문학 강의가 펼쳐진다.

아쟁과 비파를 맡은 김나후가 '아쟁산조'를 연주하고 '상주합창을 주제로 한 해금이중주'를 무대에 올리며 모든 기수가 함께 '홀로아리랑', '대장금'을 앙코르 무대로 펼치며 마무리한다.

'이현'은 2018년 광주 동구의 평생학습관 '찾아가는 배달강좌' 해금반 동아리에서 시작해 해금합주단으로 발전한 단체로 해금 선율과 우리 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꾸준한 해금 연주회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연주회를 통한 봉사 사회참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해금 합주단 '이현'의 제 3회 정기연주회 당시 단체사진. /연합뉴스

이용악문학상에 문정희 시인



제4회 이용악문학상 수상자로 문정희(사진) 시인이 선정됐다고 22일 주간 시문예지 문학진흥과 도서출판 황금알이 발표했다. 수상작은 시 '빙집'.

심사위원인 김중태 시인은 "자유와 성찰을

통해 비극의 근원을 관통하는 실존적 화두를 숙연한 감동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문정희는 1947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96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남자를 위하여', '오라, 거짓 사랑아', '양귀비꽃 머리에 꽃고', '다산의 처녀' 등을 펴냈다.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육사시문학상, 목월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스웨덴 하위 마르틴슨 재단이 수여하는 시카다 상을 받았다. 고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국립한국문학관장을 맡고 있다.

이용악문학상은 통일시대를 염원하고 민족시인 이용악의 문학정신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2019년 제정됐다. 이용악(1914-1971)은 백석과 함께 1930년대 후반기를 대표하는 시인이었으나 월북작가라는 중홍끝으로 인해 한국 문학사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제6회 문학청춘작품상은 신승철의 '토란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지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8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어린시절 추억 다섯개의 이야기로 풀어내

보성 출신 위승환 동화작가 '개구쟁이 솔명이' 펴내

태백산맥문학관 명예관장을 역임했던 보성 출신 위승환 동화작가가 첫 창작집 '개구쟁이 솔명이' (가꿈)를 펴냈다.

위 작가가 동화를 쓰게 된 계기는 '언젠가 하늘이 나에게 손자를 선물해 주신다면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으로부터 비롯됐다. 작가는 어린 시절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낸다.

책에는 모두 5편의 동화가 담겨 있다. '곰돌이는 외롭지 않아', '얼음새싹', '칠게의 아침', '푸른 별 다숨이', '개구쟁이 솔명이' 등이다. 작가는 버려진 곰돌이, 햄스터 다숨이, 얼음새싹과 칠게, 개구쟁이 솔명이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며 작품을 구상했다.

작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동심은 그렇게 모두 5개의 동화로 태어난 것.

저자는 "이 동화를 읽는 우리 어린이들과 아직 옛날 내 손녀들의 마음이 곰비임비 따뜻해지고 자유로운 꿈을 북돋는 디딤돌이 되어 지혜를 기우는 자양분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며 "그리하여



이들이 구름 한 점 없이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라서 미래의 삶의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 작가는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문예지 '인간과문학' 제8회 동화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한국문예보성군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설 무대의 관광 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서예연구원

원목회 서예전

24~30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묵향의 세계로 초대.'

무등서예연구원 원목회(源木會·회장 하영동) 서예전이 24일부터 3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초대 일시는 24일 오후 5시 30분.

이번 전시는 특히 창립 40주년을 맞아 열리는 기념전으로 의미를 더한다.

1980년 문을 연 무등서예원에서 오명섭 작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모인 '원목회'는 1981년 정식 출범 후 이듬해 광주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첫 번째 회원전을 열었다.

원목회는 매년 회원전과 중국 난주박물관에서 한·중교류전을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길자·김영숙·김혜경·오정근·양지연 등 70여명의 회원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오명섭 원장도 글씨를 내놓았다.

참가자들은 이백의 '장진주', 소동파의 '적벽회고', 다산 정약용의 '송풍루잡시', 두보의 '추홍'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명심보감', '독립선언서' 등의 주요 대목도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영동 작 '秋史論書法句'